

박물관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2003년 가을 | 3호

특집 국화그림 | 박물관 탐방 전주박물관을 찾아서 | 유물기증 겸산 최영도 변호사

학술발표 요지 한반도 출토 흑요석기와 원산지 연구현황 | 다시 읽는 선비들의 우리문화 사랑 가짜 고서화 충격

전시실 산책 백재 사람 다리 | 유물사랑 둘 같은 민족 — 돌처럼 거친 맛에 산다

박물관 강의를 하며 새로운 안목으로 | 박물관 강의를 들으며 강의를 들으며

특별전 안내 영혼의 여정 — 조선시대 불교회화와의 만남 | 국립박물관 특별전 일정

새 박물관 미리보기 | 한국박물관회는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詠 菊

我愛黃金菊 凌霜有光輝
獨立晚更好 熟謂孤芳微
風霜雖凜冽 亦不畏其威
足以制頹齡 匪獨救我飢

— 鄭 兪

鄭 兪(1309~1345)는 高麗文臣으로
左司議大夫를 지냈고, 詩와 書藝에 能했다.

황금빛 국화 곱기도 하이.
매서운 서리 이기고 피어
홀로 의젓해 더욱 기품 있는데
누가 그 고음 가너리다 이르리.
품상이 아무리 차고 매우나
그 위엄 두렵지 않네.
국화를 먹는 것이 회춘에 좋다지만
나는 그에게서 정신을 살찌우네.

譯 : 雲月山房에서

붓 끝에서 피어난 국화

중국에서는 일찍이 3,000년 전 周禮에 菊花가 등장하고, 晉의 陶淵明은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이라는 名句를 남겼을 뿐 아니라, 暗韻淡淡紫 融融葉葉黃이라 하여 국화의 색채가 여러 종류였음을 알 수 있다. 국화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예부터 茶와 함께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詩文에 먼저 등장했고, 회화로 발전한 것은 다른 花卉畫와 함께 唐代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宋代에 이르러서는 趙昌·丘慶餘 등이 寒菊을 그렸고, 范石湖 등이 전문적으로 국화를 그렸다. 그후 南末·元·明代로 오면서 文人逸士들이 그 청고하고 그윽한 향기에 매료되어 趙彝齋·李昭·柯丹邱·文徵明 등이 국화를 잘 그렸고, 뒤에 吳昌碩·齊白石으로 이어졌다.

우리 나라에 국화가 들어온 것은 養花小錄에 高麗 忠肅王代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 16세기 초 풍운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역이었던 希樂堂 金安老의 시에 菊畫가 나오고, 17세기에는 李山海·咸悌健 등이 그림을 그렸고, 18세기에는 난과 함께 많이 그렸다. 당시 사회가 志節을 요하는 유교이념이 풍미했으니 자연 四君子를 칭송했고, 특히 국화는 맑고 깨끗하여 굽히지 않는 성품과 佳色晚香이 유학자들의 고아한 취향에 맞아 사랑을 받았다.

국화는 원래 깨끗하여 혼연히 하늘과 땅 사이에 맑고

시린 향기를 뿌려, 老君眉·紅十八·雪中鶴·傲霜花·傳延年 등의 운치 있는 이름을 얻었다. 따라서 섬세한 필치와 색채로 외형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工筆畫보다 강인함과 소박함을 표현한 寫意畫풍의 그림이 많다.

국화는 대나무와 달리 잎이 커서 수묵화에서 먹의 濃淡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 난잎의 선, 대줄기의 필력, 매화가지의 구성 등 종합적인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화를 맨 마지막에 그린다. 그러나 국화는 歲寒三友에 들지 못해 괴석이나 울타리에 곁들여 그리다가 宋·元代를 거치면서 차츰 단일 소재로 다루어졌다. 그림에도 국화를 전문으로 그린 화가는 적고 작품도 드물어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중에도 墨菊畫를 그린 화가는 더러 있지만 畫譜를 남긴 사람은 많지 않다.

국화그림은 그 빛깔과 형태가 다양하므로 鉤勒(선으로 윤곽을 그리고 가운데를 채색하는 방법)과 渲染(농담처리의 한 방법) 화법이 능숙하지 않으면 잘 그릴 수가 없다. 후대로 내려올수록 채색을 하지 않고 水墨만으로 그려, 더욱 맑고 드높은 국화의 기상을 표현했다.

菊畫法은 꽃은 잎을 덮고, 잎은 가지를 덮어야 한다. 먼저 꽃을 그린 다음에 잎과 뿌리를 그리는 것이다. 뿌리는 늙은 맛이 있으며 고고한 氣가 풍겨야 하고, 잎은 깨끗하게 뺨으면 속잎 같아 안 된다. 뿌리 부분에 다른 풀을 그려 국화가지와 대응하면 더욱 좋다. 붓놀림은 맑

고 고상해야 하며 거친 것을 매우 꺼린다. 잎이 적고 꽃이 많은 것, 가지가 강하고 줄기가 약한 것, 꽃이 가지에 어울리지 않는 것, 발달한 생기나 정취가 없는 것 등은 국화를 그릴 때 삼가해야 할 일들이다.

當代에 菊畫로 이름을 얻은 화가의 작품을 살펴보면, 方丈山人 洪晋龜는 17세기 중엽의 화가로 <菊圖>를 남겼다. 꽃이 아래위로 향한 것이 번거롭지 않고, 잎의 俯仰이 어지럽지 않으며, 줄기가 힘차게 뻗어 잡스럽지 않아 그 당당한 품위를 지켰다. 붓놀림이 세련되고, 먹의 짙고 옅음이 매우 능숙한 작품이다.

玄齋 沈師正(1707~1769)은 鄭麟에게 배웠고, 花卉·草蟲에 능했으며 <黃菊圖>와 몇 점의 국화그림이 있다. <황국도>는 渴筆로 五葉反正法에 맞게 큰 줄기를 하나 세우고, 全放正面과 全放側面의 꽃 두 송이가 서로 바라보게 그렸다. 꽃과 잎이 같은 것이 없고, 뿌리 옆에 갈대를 그려 가을의 蕭森함과 국화의 傲然함이 짝을 이룬다.

다. 몽독한 大斧劈皴의 바위를 세워 청고한 맛이 짙다.

凌壺觀 李麟祥(1710~1760)의 <病菊圖>는 꽃과 잎·줄기까지 구름법을 사용해 절제된 畫意를 표현했고, 앙상한 줄기가 바로 버티고 선 것은 아직도 서리에 오만함이 남아 있다. 그러나 병든 몸을 의지로 버티나 끝 부분의 연한 가지와 잎·꽃 모두 아래로 처져 기력이 쇠진해 보인다. 여기서 그는 놀랍게도 그 사이에 竹幹 하나를 세우고, 다시 層巖을 그려넣어 意在孤高함을 잘 나타낸 명품이다.

正祖大王(1752~1800 : 호는 弘齋)은 영조의 뒤를 이어 문예부흥을 일으킨 왕으로 사군자도 잘 그렸다. 지금 남아 있는 <野菊圖>는 수직구도로는 보기 힘든 안정감과 의연함이 있고, 담백간결함이 돋보여 고아한 정취를 느끼게 하며, 꽃 위에 얹은 풀벌레는 그림에 악센트를 주어 화폭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중간에 바위를 그려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년년이 새로 피는 국화와 대



홍진구 <국도>



심사정 <황국도>



정조대왕 <야국도>

조를 이루어 石菊同心의 益壽와 志節을 읽게 한다. 옹을 진하여 윤기가 흐르고, 畫意가 맑고 고상하여 군왕의 고귀함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梅景 趙熙龍(1789~1866)은 秋史門人으로 壺山·又峰 등의 호가 있다. 그의 <菊花圖>는 앞사귀가 꽃송이를 제치고 아름다운 선을 연출하며, 여백이 지닌 넓이와 깊이가 意表를 자극한다. <梅花書屋圖>에서처럼 여기서도 양식을 넘어 분방한 천재성을 보여준다. 畫道無門이라 할 만큼 법을 넘은 세계 속에서도 배경에 바위를 그려蒼老한 높은 뜻을 잊지 않았다.

北山 金秀哲은 19세기 중엽에 점과 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淡彩를 쓰며 거칠고 간략한 특이한 화풍을 지녔던 화가다. <墨菊圖>는 꽃잎이 성글고 잎이 작아 野菊 특유의 맛이 있다. 運筆이 빠른 특성을 살려 활달하게 그리면서도 花乃有情의 묘를 살렸다. 국화를 그린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文氣를 잘 살린 손꼽히는 화가다.

古藍 田琦(1825~1854)의 <墨菊圖>는 즐기와 옹을 짙게 처리해 생명력이 넘치고, 구름법으로 꽃잎과 꽃봉오리를 구름이 일듯 흐드러지게 그렸다. 簡筆의 묘 속에 강한 흡인력을 느끼게 하는 남종화적 기질이 드러난 작품이다.

위에 소개한 화가 외에도 파격적인 화법의 鶴山 尹濟弘, 활달한 吾園 張承業, 안정감 넘치는 心田 安中植, 청아한 靑田 李象範, 九龍山人 金容鎭, 단아함이 가득한 貫齋 李道榮 등이 많은 작품을 남겼고, 국화그림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했다.

우리 민족의 미술품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조용한 속에 생동하고 한유한 속에 멋이 있다. 墨菊畫는 중국에서 배운 화법이나 그들의 기름진 맛을 제거하고, 담박하고 소탈한 맛을 강조한 것은 선인들의 예술적 창조력이다. 무엇을 그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독창적인 세계를 펼친 것이 존경스럽다. 11



조희룡 <국화도>



전 기 <묵국도>

이인상 <병국도>

아름다우나 요염하지 않고 깨끗하면서도 싸늘하지 않은

꽃이 말을 몰라도
내 그 향기로움 사랑하네.
평생 술을 가까이 한 일 없네만
그대 위해 한 잔 술을 마다하지 않으리.
사내자식 이를 드러내 웃을 수야 없지만
정녕 그대 앞이라면 한 번쯤
화알짝 웃어도 좋으리.
— 鄭夢周의 〈菊花嘆〉

선비가 마주하여 기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바로 茶山이 말한 '아름다우나 요염하지 않고 깨끗하면서도 싸늘하지 않은 꽃' 국화다. 모든 잎과 열매가 시들고 떨어지는 찬 계절에 몇 송이의 국화마저 없다면 시린 마음들을 어떻게 달랠 수 있으랴. 가을의 허허로운 산과 들에서 피어난 연보랏빛, 노랑빛의 조출한 꽃들. 산국, 감국, 축부쟁이, 구절초, 개미취. 이름은 각각 달라도 모두 들국화라고 불리는 이 꽃들 덕분에 가을의 빛은 한층 깊어간다.

국화는 그 향기가 진해서 예부터 차로 혹은 술로 만들어져 우리 곁에 가까이 있던 꽃이다. 국화주는 일명 延命酒라고도 하며, 중국의 팡조라는 전설적 인물은 국화주를 마시고 800살까지 살았다고 한다. 음력 9월 9일인 重陽節에 이 술을 마시면 무병장수한다고 했으며, 두통이 낫고 눈과 귀가 밝아진다고 했다. 또 꽃을 잘 말려서 차로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쉬 늙지 않는다고 한다. 특별히 甘菊은 노란색과 단맛으로 일명 眞菊이라고도 불리는데, 감국 포기 밑에서 나오는 샘물은 국화수라 하여 끓여지는 물로 여겨지는 등, 국화는 장수를 상징하는 신비한 영약이었다.

봄에 진달래 화전이 있다면 가을엔 국화전이 있고, 가을이 깊어가는 화창한 어느날 문마다 종이를 새로 바를 때, 국화꽃과 잎을 손잡이 부분에 모양 좋게 붙이는 것도 우리 선조들의 은근한 멋내기 방법 중 하나였다. 국화 꽃잎이 비치는 창호지 문은 방안을 한결 환하고 따뜻하게 했으리라.

그러나 옛 사람들이 국화를 아낀 깊은 이유는 국화가 다른 꽃들과 그 아름다움을 다투는 봄꽃이 아니라 가을에 홀로 피는 꽃이라는 데 있다. 서리 내리는 늦가을까지 오래도록 그 향기를 간직하는 국화에서는 높은 뜻을 굽히지 않는 깨끗한 君子의 품모가 느껴진다. 차가운 가을바람을 맞으며 들판에 홀로, 혹은 무리지어 핀 꽃들……. 그 쓸쓸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에 어찌 끌리지 않을 수 있을까? 높고 맑은 하늘이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뻗속까지 청정히 하는 계절에 홀로 그 향기를 내뿜는 국화야말로 지조와 아취를 지닌 선비들이 사랑할만한 꽃이 아니었을까?

마침 李德懋의 짧은 글 한 편은 선비와 국화의 아름다운 만남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가을날 烏巾을 쓰고 흰 겹옷을 입고 綠沈筆을 흔들면서 海魚圖를 평하는데, 문종이로 바른 창이 화안하더니 흰 국화의 기우숙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뭍은 먹을 문혀 기쁘게 모사하였더니, 한 쌍의 큰 나비가 향기를 좇아와서는 꽃 가운데 앉는다. 더듬이가 마치 구리줄 같이 또렷하여 헤일 수 있었으므로, 꽃 그림에 보태어 그렸다. 또 참새 한 마리가 가지를 잡고 매달리니 더욱 기이하였다. 참새가 놀라 날아갈까봐 급히 베끼고는 쟁그렁 붓을 던지며 말하였다. ‘일을 잘 마쳤다. 나비를 얻었는데 참새를 또 얻었구나!’” 『蟬橋堂濃笑』에 실려 있는 글이다.

추운 겨울 불도 때지 못한 방에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 한서를 병풍삼고 논어를 이불삼아 잤던 이덕무. 어머니와 누이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는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어, 비록 남들이 ‘책만 읽는 멍청이’라고 해도 기쁘다던 그 마음의 경지가 아득하여 높기만 한데……. 그림을 감상하던 중 우연히 비친 국화 그림자에 놀라 재빨리 그려내는 그 감수성 때문인가. 현실이 아무리 불우해도 선비의 뜻은 이토록 맑고 자유로울 수 있음을 그는 온 삶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象村 申欽은 색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향기로운 꽃을 두고 이렇게 다짐했나보다. “군자는 백 세에 향기를 전할지언정 한 시대의 아름다운 자태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



윤제홍 <난국괴석도>

전주박물관을 찾아서

한창 여름더위를 뽐내던 7월 말, 우리는 싱그러운 아침햇살을 맞으며 전주의 서쪽 외곽에 위치한 국립전주박물관을 찾았다. 이른 아침인데도 반가이 맞아주시는 관장님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후, 학예사의 안내를 받았다.

1990년 10월에 개관한 전주박물관 정문을 들어서니 깨끗하게 정돈된 정원과 산뜻한 건물이 우리를 맞았다. 양 옆으로 뻗은 나무들 사이로 웅장하게 위용을 드러낸 본관과 서쪽으로 비껴 있는 아담한 사회교육관은 전주박물관을 구성하는 양대 시설물이지만 형태나 기능이 대조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룬다. 본관은 양쪽에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마치 거대한 봉황이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것은 전주의 상징인 전주객사에 우리 민족의 전통 배흘림기둥을 현대감각으로 재현한 것이다. 이에 비해 사회교육관은 민흘림기둥으로 지붕에 동판을 이용한 현대적 세련미를 갖춘 건축물이다.

고고실에는 전북일원에서 출토한 유물을 중심으로 약 730여 점의 자료가 있으며, 선사·고분·미륵사 그리고 국내에서 최초로 조사한 해양제사유적인 부안 죽막동제사유적 분야의 네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전시실에는 백제 특유의 삼족토기 등 많은 토기가 있지만 부안 죽막동유적 진열관이 특히 관심을 끌었다. 변산반도의 높은 절벽 위에 위치한 죽막동제사유적은 지리적으로 파도가 많이 일어 조난의 위험이 컸던 해양환경으로 인해 어로활동과 관련있는 제사유적이 많은 지역이라 한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이 전시실에서는 水靈신앙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제말 등을 전시해, 이 지역이 海神에게 제사를 지내 豊漁와 뱃길의 안전을 기원했던 곳임을 알기 쉽게 보여주었다.

미술실은 이 고장에서 출토한 것 외에도 불교조각·금속공예·도자공예·역사자료·서화작품과 미륵사지 출토유물을 전시했다. 이 전시실에서는 우리 나라 불교조각 발달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부안 유천리 등지에서 생산한 양질의 청자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전시실의 백미는 익산 王宮里 오층석탑에서 나온 金剛般若經函과 金製舍利內盒, 綠琉璃舍利瓶이었다. 그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유물을 직접 만나니 그 정교함과 섬세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金製金剛經板은 金板을 얇게 펴서 經文 전체를 押出한 것으로, 그 기법이 절묘하여 한국공예의 극치라 할만했다. 또한 이곳에는 李成桂發願舍利器도 있는데, 조선왕조 개국 직전 이성계를 중심으로 승려와 俗人 등 만여 명의 발원을 담은 것으로, 강원도 금강산 월출봉의 石龕에서 나온 것이다.

민속실은 향토생활문화의 특징을 살려 크게 농경·식생활·민속예능·민속공예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누었다. 이 전시실은 갖가지 사료를 종합하여 당시의 생활을 입체적으로 복원·전시했는데, 전시실을 돌아보고 있노라니 옛날의 어느 한순간에 불쑥 끼어 들어간 것 같은 착각도 들었다. 한편, 입구에 복원해놓은 堂山祭는 정월 보름에 부안읍 동문 안 마을에서 지내던 豐農祈願祭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줄다리기를 한 후 그 줄을 당산기둥에 감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었다고 한다. 당산 위에 올려놓은 새는 양증맞은 것이 곧 날아오를 것 같아 잠시나마 입가에 웃음이 맴돌았다.

마지막으로 둘러본 사회교육관은 2002년에 완공했다 하는데, 다양한 전시매체를 활용한 역사문화실, 영상매체와 슬라이드 등의 사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료실, 관람객이 토기만들기·석탑쌓기·전승공예체험·탁본뜨기 등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외에도 봄·가을에 열리는 특별전시 공간인 기획전시실과 우리 나라 현대 서예가로 명망이 높은 故 石田 黃旭 선생의 친필과 가보, 애장문화재 200여 점을 전시한 석전기념실이 있다.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사리병 : 높이 6.8cm, 사리합 : 높이 10.3cm, 금제경판 : 14.8×17.4cm

깔끔하고 한 눈에 볼 수 있게 전시하여 아주 편안하게 관람했고, 정다운 친구와 헤어지는 것처럼 아쉬움을 남기며 뒤돌아보니 봉황이 큰 날개를 펴며 곧 날아오를 듯 했다. 문을 나서니 유난히 밝은 햇살에 눈이 부셨다.

전주박물관을 관람한 후에는 팬아시아종이박물관(Pan Asia Paper Museum)에 들러 한지를 만들어 보고,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에 있는 원삼국시대 주거지와 고분 발굴현장을 돌아본 후 서울로 향했다.

무척 더운 날,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많은 비가 내렸다. 시원하게 내리는 비를 보며, 아름다운 전북과 이 지역의 문화를 훌륭하게 살리려고 애쓴 박물관의 노고를 생각하니 미덥고 흐뭇했다.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지지 않고, 아주 가까운 느낌! 답사의 즐거움과 많은 것을 가슴에 담고 온 뿌듯함에 살며시 눈을 감아본다. 



토기수집 20년 검산 최영도 변호사

2001년 5월 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있었던 謙山 崔永道 辯護士 『寄贈文化財 土器 特別展』은 토기를 접한 경험 중 특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서는 순간 아 - 하는 탄성이 절로 터져나왔다. 단일종류로는 가장 많은 1,500여 점 기증, 그중에서 선별한 500여 점 전시라는 방대한 양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시대의 혼이 서려 있는 신비함 때문이었을까. 유구한 세월의 정적을 안고 어떤 것들은 엄청난 크기로, 어떤 것들은 앙증맞은 자태로 제각각 빛을 뽐어내고 있었다. 거기에는 인간 내면의 조형의지를 구현한 것도, 생활에 절실히 필요했을 땀내음이 배어 있는 것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도란도란 한마당에 어우러져 있었다. 토기가 그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롭기까지 했다.

선사시대 이래 인간이 불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최초의 발명품이고, 예술의 근원을 생각하게 하는 조형물이며, 사육집단의 문화상을 추측하게 하는 고고학 자료로 중요한 유물이기도 한 토기. 그런 토기문화재를 거의 반평생에 걸쳐 수집하여 애장하다가 기증한 최영도 변호사를 만났다.

가장 아꼈던 유물은 어떤 것이었는지 하는 첫 질문에, 검산은 “토기수집은 유물과의 연애”라 하며, “구연부가 마치 여인네의 단정한 입술 같이 아무지게 마무리되고 몸은 살이 통통하게 쩌 풍만한 것이 꼭 복스런 동양미인 같이 생긴 百濟 瓶과, 검은 빛갈의 바탕에 어깨선이 꺾이고 목에 突帶가 하나 둘러진 것이 마치 까만드레스에 진주목걸이를 한 현대 서양미인을 연상케 하는 高麗 瓶을 가장 사랑했다. 아내가 애첩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이 토기 두 점은, 크기도 작고 값이 높지 않은데도 오히려 더 애착이 가는 것들이다. 또 統一新羅 扁油瓶은 그 시대 것으로는 유일한 형태로, 아예 서류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며 보고 싶을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꺼내 보곤 했을 만큼 아꼈다”고 했다.

예술성이 두드러진 토기를 꼽아 달라는 요청에, “의도적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釉藥의 흐름이 멋진 이 百濟 瓶은 몇천 점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것으로, 그 진면목을 알려면 토기의 釉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백제 병(왼쪽) : 높이 16cm, 고려 병(오른쪽) : 높이 15cm
국립중앙박물관

한다. 토기의 유는 자연유로 胎土 속의 硃砂粉이 고온에서 녹아 밖으로 흘러나와 器面을 덮거나, 燒成時 참나무 등의 땀감이 가마에서 재가 되어 기면에 落着될 때 재의 硃砂 성분이 琉璃質化 된 것"이라며, 진지하게 설명을 곁들이는 모습에서는 안목과 지식을 키우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관련 서적을 두루 섭렵했다던 노력의 흔적이 여실히 묻어나왔다.

또 百濟 高杯는 부장양태의 변화로 출토량이 극히 드물다며, “접시 부분은 넓고 완만하되 구연부 끝이 오므라들어 긴장감을 준다. 나팔 모양으로 바라진 굽다리의 곡선은 지극히 백제적이며, 굽다리 가운데 작은 圓孔을 하나만 뚫어놓은 것이 이 고배의 백미다. 우리 시대의 그 어떤 유능한 공예가가 새로 디자인한다고 하더라도 이 고배에서 어느 하나 뺄 것도 보탬 것도 없을 것 같다”고 할 때는 겸산의 심미안의 경지가 가늠되기도 했다.

수집에 얽힌 이야기는, “統一新羅 印花文骨壺는 10가지 문양을 16단으로 施文한 것으로 인화문에 관한한 최고의 명품으로, 작은 집 한 채 값으로 돈을 장만하느라 무척 애태웠고, 청자 器形을 그대로 속 빼닮은 고려의 조롱박모양주전자는 변호사 수입료 대신으로 받아 소장하게 된 것인데, 대단한 명품 토기”라 했다. 또 구입할 때부터 뚜껑이 없었던 伽倻 臺附壺와 百濟 骨壺는 우여곡절 끝에 제 짝을 찾아 맞췄고, 百濟 長頸壺와 器臺를 제대로 된 세트로 맞춰가는 집념어린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낼 때는 목소리에 희열이 넘쳤다. 도록의 사진을 일일이 짚어가며 만남의 경위를 들려주는 내내 겸산은 각 토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내비쳤으며, 그때의 기쁨과 뿌듯함이 회상되는 듯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토기와의 안타깝거나 아픈 인연으로는, “百濟 兩耳把手壺는 빼어난 조형미에도 불구하고 구연부가 경

주식이라는 주장이 있어 도록에도 실리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또 토기

표주박잔을 살 때 덤으로 받은 5세기경의 백제 접시는 20여 년의 수집기간

동안 그런 토기접시는 유일한 것이었는데, 이사할 때 내 실수로 깨뜨렸다. 1,500

년이나 된 역사를 내 손으로 훼손한 일이 정말 마

음이 아팠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대순으로 모으

다 보니, 고려·조선시대의 토기를 제대로 수집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회한으로 남는다”고 했다.



백제 고배·접시, 국립중앙박물관



통일신라 편유병: 높이 11.5cm, 국립중앙박물관

청자나 백자·서화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집애호가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 있던 토기에 겸산이 눈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토기를 빨리 수집해서 체계화하고 토기전문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목표 때문이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연륜이 쌓여가고 수집량도 늘어나 400여 점 정도 모였을 즈음에는 보관 장소가 문제였다. 일부러 다락방이 딸린 집으로 이사하여 20평 가량되는 다락방을 수장고로 개조하여 보관했는데도 점점 늘어나는 양 때문에 발코니까지 내어줄 정도가 되었다. 토기의 특성상 보관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물을 떠놓아 자연증발시키거나 송풍기를 돌려주는 등 보살핌에도 軟質土器 몇 점은 터지는 일을 겪었다.

상당량의 수집이 이루어진 뒤 여러 경로로 토기전문박물관 건립을 시도했으나, 한 개인이 그 일을 해내기에는 현실의 벽이 매우 높았다. 그래서 그 꿈은 접되, 더 많은 사람이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또 토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신의 수집목적에도 부합하고, 토기 역시 진정한 빛을 내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기증을 결심하게 되었다.

수집 초기에는 안목이 설어서 眞僞 구별을 못하여 명품을 놓치기도 하고, 가격이 만만치 않아 선뜻 사지 못하고 망설이다 놓칠 뻔하기도 했다. 때로는 지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수집한 토기를 소장할 때는 자식처럼 아꼈고, 기증 후에는 못한 딸을 명문가에 시집보낸 듯하다며 애잔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주고 나니 이렇게 가벼운 것을...” 하며 멩에를 내려놓은 홀가분한 느낌을 토로할 때는 그 개운함이 나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다.

필생의 소명을 이루어 낸 겸산의 맑은 모습은, 이미 그대로 후박한 토기 그 자체였다. 海

이 난은 문화재를 기증하신 분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마련했습니다.



다락 중앙 진열대

한반도 출토 흑요석기와 원산지 연구현황

김 상 태 | 국립춘천박물관

검은색 화산유리인 흑요석은 비결정질의 천연유리로 가공이 쉽고, 제작자가 의도한 바를 충분히 구현해 낼 수 있는 훌륭한 석기의 재료였다. 때문에 이미 구석기시대부터 석기의 재료로 종종 이용되어 왔다. 흑요석은 우리 나라의 선사시대 유적에서도 다양하게 가공된 형태로, 혹은 원석의 형태로 발견되었다.

한편, 흑요석은 보통 용암의 급속한 냉각에 의해 생성되므로 산출지가 화산분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 산출지점마다 각기 다른 지질학적 환경 요인 때문에 생성된 흑요석의 화학적 구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유적 내에서 출토되거나 채집된 흑요석의 원산지를 분석하고, 이를 선사시대의 교역과 이동로 및 이동범위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 석재와 기술이 결합되어, 함께 이동한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선사시대 문화의 이해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 흑요석이 최초로 출토된 것은 1940년 동관진유적이다. 이후 국내에서 흑요석이 채집되었다고 알려진 지점은 발굴된 유적과 지표조사지점을 포함하여

수십 개소에 이른다. 발굴조사시 흑요석기를 수습한 유적은 구석기시대 13곳, 신석기시대 18곳, 청동기시대 6곳에 이르며, 지표조사에서 흑요석을 채집한 곳은 약 57곳이 넘는다.

흑요석이 발견된 유적은 예외 없이 후기구석기나 후기구석기 최말기 단계이다. 앞으로의 조사에서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면 보다 분명해지겠지만, 지금까지의 자료만으로 평가해보면 한반도지역의 고인류가 흑요석을 양질의 석기재료로 인식하고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후기구석기 무렵부터인 듯하다.

유적에서의 출토양상을 보면, 흑요석이 다량으로 발견되는 유적 중 구석기시대의 경우 일정 범위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상무릉리Ⅱ지점·수양개·하화계리 사둔지·삼리·호평유적 등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유적 내에서의 흑요석기의 제작 행위를 반영하는 증거이다.

신석기·청동기시대의 경우 흑요석기의 출토량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며, 특히 한반도의 북부지역과 남해안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다. 또 한편으로

주목할만한 것은 신석기시대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별로 발견되지 않다가 후기로 가면서 발견량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흑요석의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산지별로 다른 외양적 특징을 갖고 있거나, 화학조성면에서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겉모양을 관찰하는 기초적인 방법부터 자연과학적 분석수단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유적에서 출토한 흑요석의 원산지를 동정할 수 있다.

분석법으로는 晶子形態法·피션트랙법(Fission track)·중성자방사화 분석법·형광X선 분석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중성자방사화 분석법과 형광X선 분석법을 일반적으로 이용한다. 모두 미량원소를 검출하는 방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의 경우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으나 시료를 파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후자는 비파괴 분석법으로 단시간에 많은 양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료의 표면상태가 풍화 등에 의해 양호하지 않으면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들 분석법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즉 시료의 상태와 양에 따라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출토된 흑요석의 원산지를 연구한 결과는 많지 않다. 그간의 연구결과 백두산·중국 동북부·일본지역 등이 흑요석의 원산지로 추정된 바 있다. 이들 원산지는 북방계통과 남방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북방계통은 백두산을 비롯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이북의 몇

몇 원산지에서 기원했고, 남방계통은 일본계 흑요석으로 대표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남방계통 흑요석과 관련이 있는 원산지 분석결과들은 일관성 있는 결론에 도달한 반면, 북방계통의 연구자료는 결과에서 상당한 혼선과 불일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남해안지방 유적의 흑요석 자료는 대부분 일본인 학자에 의해 분석되었고, 그들은 이미 충분히 축적된 일본지역의 원산지 자료를 결과분석에 적용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소위 '백두산계 흑요석'이라는 실체가 아직까지 모호하며, 또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원산지 자료'를 취하여 분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흑요석의 원산지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 첫 번째는 흑요석의 성분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결과를 비교하며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 자료의 분석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전자의 경우 자연과학의 도움으로 정확도와 신뢰도가 믿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후자는 불완전하게 구축된 분석자료로 인해 연구자가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비공식적이며 체계적이지 않은 경로로 입수된 백두산이나 북한지역 흑요석 자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결론내리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한 원산지에서도 화산분출 시기 등에 따라 몇 개의 다른 원석군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원산지 수집자료의 정확한 실체를

공개하고, 이를 공유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소위 '原產地 原石群別 標準 分析表'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한반도 출토 흑요석 원산지 연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물론 원산지 자료의 축적이 쉽지 않으므로, 먼저 출토자료를 분석한 결과부터 축적하려는 노력도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다만 지금도 간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원산지 자료들부터라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병행하여 유적에서 출토한 자료를 분석할 경우에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출토자료의 분석과 분류를 시도하여 특성을 공유하는 '원산지군'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과제가 있다. 흑요석의 분석은 필연적으로 유물의 훼손과 직결된

다. 형광X선 분석의 경우도 아직은 완벽한 비파괴 분석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적절한 연구활동을 위한 부분적인 유물변형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고학적 발굴조차도 과거에 형성된 유적에 대한 또 다른 파괴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발굴한 유적과 유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뒤따르지 않으면, 고고학적 발굴행위는 정당한 의미를 부여받기 어렵다. 현행의 문화재보호법은 출토유물의 연구를 위한 유물변형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것은 무분별한 파괴적 분석행위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유물을 보호하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제한이며 규제이다. 다만 우리 나라 선사문화의 이해를 위한 연구활동의 통로는 열려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우리회에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표한 논문의 요지입니다.



좁날몸돌 : 후기구석기, 강원도 양구군 상무릉리Ⅱ지구 출토

가짜 古書畵 충격

최 순 우 (1916~1984) |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

書畵를 보는 눈에는 터럭만큼의 착오도, 1점의 용서도 있을 수 없다 해서 先人들은 金剛眼 酷吏手라는 말을 지어냈다. 말하자면 서화를 가려보는 안목이란 더할 나위 없이 올바르고 분명하게 참다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과 마치 가혹한 구실아치의 손길처럼 한 치의 허점도 용서할 수 없는 준엄한 가치판단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뜻인 것 같다. 언뜻 생각하면 이러한 안목이란 보통 서화의 眞假를 가려내는 데에만 요긴한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작품 개개가 예술로서 얼마만치의 높은 조형차원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점을 판단하는 능력에도 무거운 비중을 두고 있다.

서화를 보는 눈이 아직도 미숙한 사람들이나 미술작품을 건성 수집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작품의 眞假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 그것은 예술의 참맛을 즐기려는 사람이나 예술작품을 재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금기이다. 즉 아무리 眞筆이라 해도 작가마다 허술한 작품이 있기 마련이며 그 내용과 기법에 따라서는 그 작가의 장점이나 특징이 희미한 작품들이 있어서 예술적인 평가는 물론 세속적인 인기를 얻기도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인기작가의 진필이라 해도 그 그림의 격을 모르고 덮어놓고 사두게 되면 두고두고 실망하게 되기도 쉽다는 뜻이다. 생각해 보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물을 것 없이 한 시대의 두드러진 작가는 그리 많은 법이 아니다. 현대 우리 나라에도 수천수백의 서예가와 화가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열 손가락을 꼽고 나면 그다지 특출한 사람이 없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말하자면 고서화건 현대서화건 작가를 올바로 가려잡아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古畵를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두드러진 작가의 그림일수록 가짜가 많기 마련이다. 갖고 싶은 사람은 많고 한 작가의 작품 수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조있는 옛 작가들은 덮어 놓고 작품을 재물로 바꾸는 따위의 행위는 부끄러운 일로 여겨 그림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림을 그려 주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서화의 가짜 소동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요, 또 우리 나라에만 있는 일도 아니어서 가짜 서화의 기술도 천수백 년의 역사가 쌓여져 왔으나 가짜를 가려내는 일은 정말 격이 높은 서화를 집어내는 일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좋은 작품을 가려내는 안목이란 아무나 지닐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화의 지식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중의 관문이 있기 마련이다. 우선 서화를 대했을 때 그것이 檀園이니 蕙園이니 또는 謙齋니 阮堂이니 石坡니 하는 인기품목일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예사 그림을 봐도 전문가들은 대강 세 가지로 나누어서 眞假 판단의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첫째는 첫눈에 환하게 눈에 차는 좋은 작품, 둘째는 긴가민가하는 약간의 의문점이나 결함들이 눈에 띄어서 멍뭉치게 되는 작품, 셋째는 첫눈에 낙제점을 받아서 다시 살필 필요조차 없는 작품 등이다. 가짜 그림들이 흔히 종이에 고격을 붙여 보려고 물을 들이거나 일부러 종이 먹은 옛 종이를 구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인기 작가들의 것일수록 벌써 그 옛날에 僞作을 한 것이거나, 작품기법이나 경향이 비슷한 그 시대流의 작품에 名家의 가짜 落款을 후에 찍은 것들도 적지 않다.

그러한 僞作들을 추려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쓰고 畫고 간에 격이 있는 작가의 좋은 작품일수록 화면에 어느 점 하나, 어느 줄 하나를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낙관의 경우 글씨의 필체도 문제가 되지만 화면의 공간 속에 글씨 한 줄, 도장 하나를 어디에 어떻게 찍었느냐, 또는 글씨와 도장의 크기는 어느 정도 잘 조화되어 있느냐 화면구성으로 보아서 인주색은 어떠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은 결코 소홀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잘 된 가짜라 하더라도 그러한 격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데에서 허점이 발견되는 작품들은 우선 조심해서 살펴보게 되고 또 그러한 결함은 반드시 무슨 곡절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초심자일수록 그러한 결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마련이지만 먼저 명심해두어야 될 일은 초심자일수록 작품 앞에서 허욕을 삼가야 된다는 말이다.

즉 작품 앞에서 차분히 생각해보고 또 충분히 살펴보기 전에 작가의 이름이나 낙관에 사로잡혀서 무슨 황재나 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요새 세상 고미술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꼭 필요한 그림, 꼭 가졌으면 하는 글씨일수록 오래 두고두고 찾는 사이, 자신의 안목도 길러지고 또 어쩌다가 그것이 제 차례에 돌아올 수 있는 행운이 깃들이게도 된다는 것을 경험에 비추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최순우전집4』(1992, 학고재) 

백제 사람 多利

김 윤 | 회원

‘多利’는 백제 사람이다. 나는 2003년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 그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야겠다.

그러나 내게 多利는 그렇게 먼 사람이 아니다. 문을 열면 금방 그의 공방에 가 닿을 듯 우리는 잘 아는 사이다. 나는 그 공방의 열기와 그의 생애의 저 척박한 나날들을, 그의 호흡의 어느 한 자락을, 틈없는 열망을 피부에 닿을 듯이 느낀 일이 있다. 어느 캄캄한 해안에서 내 배가 그의 배 옆을 미끄러지듯 지나간 것도 같다. 나의 윤회의 시간은 빠르고 그의 시간은 느려서였을 게다. 그를 생각하면 문득 산초 냄새가 난다. 하얗게 흐드러진 밤꽃 냄새가 난다. 그의 이름은 나를 따뜻하게 한다. 그러면 나는 그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하여도 되는 것 아닐까?

내가 공주에 처음 간 것은 94년 6월이었다. 산마다 밤꽃이 눈 덮이듯이 피어서 온 천지가 하얀 느낌이었다. 금강이 파란 향라를 곱나루 모래 위로 차르륵 펼쳐 보였다. 그때는 무령왕릉에 관람객이 들어갈 수 있었다. 서늘한 기운이 발 끝부터 이마까지 휘감아 올랐다. 무덤을 막 봉했을 때, 감실에 등잔불이 저 혼자 깊어지다가 이윽고 필력 사위는 순간, 벽돌의 연화문 돌을무늬가 마지막 불빛에 한 번 반짝 묻어나고, 그리고는 긴 어둠. 천오백 년이 가까운 세월을... 켜켜이 쌓인 시간의 미세한 알갱이들이 젖은 공기 속을 떠돌다가 툭툭 말을 걸어왔다. 義道에 놓여진 鎮墓獸(돌짐승)는 몽툰한 코와 매력이 넘치는 금속뿔로, 그 긴 세월 빛소리와 눈발을 치받고 또 걷어올리며 묵묵히 수레를 끌듯 제 주인의 무덤을 끌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다.

전시실에서 처음 발굴하던 당시의 사진자료를 보았다. 흐트러진 관과 나무뿌리에 얽힌 유물들 사이, 다 증발해버린 한 줄기 체운을 붙들고 도톰한 은팔찌 한 쌍이 새끼뱀처럼 꼬아리를 틀고 있었다. 내 마음이 주르르 그곳으로 흘렀다. 어떤 전류가 내 눈꼬리를 스윽 문질렀다. 박물관 전시실의 유리를 건너 나는 그 팔찌를 처음 만났다. 그 튼실한 두께와 아름다운 조각에 매료되어 오랫동안 쳐다보고 서 있었다. 팔찌 내벽에 음각된 명문이 보였다. ‘庚子年二月多利作.’

아, 그러면 이 팔찌는 多利라는 사람이 만들었구나. 이럴 수가. 백제에도 사람이 살았고, 그는 장인이었고, 마음을 다하여 은을 녹이고 무늬를 파서 이 아름다운 것을 완성했다. 그는 왕비를 만난 일이 있을까. 마주칠 만큼 가까운 거리가 아니더라도 먼 발치에서 본 일은 있지 않았을까. 두 사람이 다 젊었던 옛날에, 씻물을 녹이느라 화덕 같이 뜨거운 공방을 뛰쳐나가 밤나무 그늘에 몸을 기댔을 때, 멀리 꽃구름처럼 나들이 가는 행렬이 보였는데 왕비에게 드리운 휘장 잠시 바람에 들쭉였거나, 무르익는 어느 여름날 곱나루에서 채양 드리운 왕비의 배가 막 매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는 은장수를 찾아 강가에 갔다가...

온 얼굴 수두가 덮이는 쓰라린 그리움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나는 유리창 안의 多利에게 말을 건넸다. 나는 그날 多利라는 백제 사람을 만났고, 그 감응을 따라 그의 지난한 삶에 배어들던 단내나는 숨소리를 들었다. 돌아와서 얼마 동안 多利는 계속 내 마음 속을 맴돌았다. 그 즈음은 가끔 몇 사람씩 모여서 詩를 공부하고 있던 때여서 나는 그 잊을 수 없는 이름을 향하여 변변치 않은 시 한 편을 썼다.

多 利

등잔불이 놓였던 감실엔 그윽음이 그대로 있었다 .

금강 다리를 건너 공씨 송산리 무령왕릉에 와서 한 잎 들풀 같은 그대 냄새를 맡는다.

千五百年이 지났어도 산자락마다 밤꽃 하얗게 구름처럼 덮였다.

푸른 언덕에 그때 꿈나루처럼 오늘 비도 뿌린다.

밤꽃 향기 천지에 흐드러져 저절로 醉해서 얼굴 붉어지는 날,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숯불을 피워 銀을 녹이는 그대. 왕비의 부드러운 팔목, 가슴에 얼음 같은 불 송어리 담고 초생달 빛 銀팔찌 한 쌍, 뼈를 깎듯 무늬 새기던 사람. 텅 빈 무령왕릉 안에 그대 체온은 없다. 송산리 푸른 들판을 한숨으로 맴돌 뿐.

세월을 거슬러 오늘,

내게 불을 지피는 눈부신 손길.

바람의 울타리 밖에서 그대를 만난다.

多利.

그 뒤에도 그는 내 마음 어느 갈피에 머물러 있었고, 이 詩는 공책 속 어디 묻혀 있었다. 부질없이 시단에 등단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 나는 다른 여러 편의 시와 함께 보냈는데, 나중에 당선작이 문예지에 실린 걸 보니 이 시가 맨 앞에 놓여 있었다. 아마도 이 백제 사람은 내가 힘든 고갯길을 오르며 숨가빠할 때 詩라도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었나보다. 



다리작명은제팔찌 : 백제, 무령왕릉, 지름 14cm, 국립공주박물관

돌 같은 민족 — 돌처럼 거친 맛에 산다

소 재 구 | 국립중앙박물관

덜커덩 방아나 짚어 휴 —
거치른 밥이나 지어 휴 —
어마님 아바님께 바치고
남기시거든 내 먹으리 휴 — 휴 —
〈고려가요, 相杵歌; 방아짚기〉

‘보리방아 짚기 싫거든 시집살이 할 생각도 말라’는 옛 할머니들 말씀.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허구헌 날 돌절구에 껌질곡식을 넣고 방아를 짚어 밥을 지었다. 돌확에 마늘·붉은 고추를 갈아 생김치도 버무리고, 장담글 땀 삶은 메주콩도 으갠다. 매일 먹고 살아가는 방편이 바로 돌과의 만남이었다. 빨래는 시냇가에 서 물에 적셔 돌판에 문지르며 두들겼고, 풀먹인 질베는 잘 말려 또 다듬잇돌 위에서 마구 두들겼다. 아버지는 농기구를 지고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 돌밭을 일구었다. 고르고 또 골라내도 하세월 돌고르기는 계속되고, 밭가에는 돌독이 쌓였다. 계집아이들은 공기놀이·사방치기를 하고, 사내아이들은 비석치기 또는 시냇가 바위틈을 뒤적이며 가재와 물고기를 잡았다.

일상생활은 돌과의 거친 터치의 연속이었다. 그 생활 속에서 성정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졌다. 우리말 중에는 기상천외할 욕설이 많다(반면 일본말에는 놀랍게도 욕설이 매우 적다). 일례로 ‘나쁜 놈’을 의미하는 표현은 ‘죽일놈, △할 놈, △같은 놈, 욱시럴 놈, 오살할 놈, 썩을 놈, 망할 놈, 창시빠진 놈, 빌어먹을 놈, 빌어먹다 턱 떨어질 놈, 능지처참할 놈 ...’ 등 그 거친 말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평상언어에서도 예뻐 죽겠다, 미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환장(장이 뒤집힘)하겠다, 내가 미쳐, 기가 막혀(죽음을 의미)... 정말 거칠다. 풀꽃에 이름을 붙여도 ‘며느리밀씻개, 며느리밥풀꽃, 쥐똥나물, 개불알풀, 도둑놈꽃(달맞이꽃, 도둑과 친한 꽃), 코딱지나물’ 등 정말 거칠다.

말뿐인가? 김치는 찢어 먹어야 맛있고, 닭고기·개고기·생선구이는 뜯어내야 군침이 돈다. 감자전·부추전·파전·빈대떡 등 부침개도 칼로 썰어 먹는 것보다 뜯어 먹어야 제맛이다. 수제비는 생긴 대로, 나물은 손으로 주무른 대로, 마구 버무린 대로 먹으며 맛있었다 한다. 그것도 부족하면 이것저것 쏟아놓고 그냥 비벼 먹는다. 너무 맛있다. 한국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 몇 번 빨다 으드득 부숴 먹는다. 외국 아이들은 끝까지

빨아 먹는다. 식혜, 갈아 만든 배, 썩썩이 오렌지 등 씹히는 게 있는 거친 음료수가 불티나게 팔렸던 곳이 한국이다.

쓰던 것이 고장나면 일단 한 대 때리고 본다. 고장난 시계, 잘 안나오는 텔레비전·라디오, 안 열리는 자물통, 답혀지지 않는 전기다리미 등은 우리에게 술하게 얻어맞고 한 번쯤은 재가동되었다. 인간에게나 사물에게나 짐승에게나 매가 약이었다. 심지어 화투를 치거나 친구들과끼리 놀이를 하면서도 우리는 술하게 손목이나 이마를 얻어맞는 시합을 즐겼다.

거친 것에서 느끼는 오묘한 애정이 우리에게 살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칠어도 악랄하지 않다. 오히려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출일 수도 있다. 판소리나 전통민요의 발성을 들어보라. 그 거친 음조에서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터뜨려 감동을 받는 민족이 바로 우리다. 그뿐인가. 기분 나쁠 때 욕이 나오지만 상대방이 너무 좋아도 욕을 한다. 기분 좋아서 막 때려주기도 한다. 사제시간, 선후배간에도 매 끝에 정이 들고 혹독한 시집살이 끝에 고부간의 정이 맺어지기도 하였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을 보라. 이 세상 수억만 구의 불상 중에서 우리의 석굴암 불상을 능가하는 작품은 없다. 말쑥한 석가탑, 아름다운 다보탑, 한국에서 가장 잘 만든 다각다층석탑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투박하면서도 웅장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 돌아서면 다시 붙잡는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등은 우리의 보배로운 석조문화재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서서 자세히 보라. 마지막 끝손질은 결코 갈아낸 것이 아니라 두들겨 다듬은 것이다. 왜 그랬을까? 우리 조상들은 돌의 속성이 거칠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그래서 마지막 손질까지도 돌의 형질을 나타내 주느라 부드러운 표현마저도 최소한의 거친 손맛으로 돌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기도 하고, 남을 부리기도 부림을 받기도 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임없이 접촉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조상들이 돌을 다스리면서도 끝까지 돌의 성정을 나타내 주었듯이 우리도 최소한 상대방의 본성 기질이 꺾이지 않도록 배려하며 기를 북돋아주어야 한다. 그리되면 자식들은 옹게 성장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도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며 자기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거친 애정을 쌓으며...

우리는 돌에서 터득한 것처럼 돌 같은 거친 맛을 한껏 즐기며 살고 있다. 목욕할 때 돌로 거칠게 때를 밀다가 이태리타월을 발명하여 신나게 때를 밀듯... 그 거칠고 시원함을 느끼며, 삶에 대한 역동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새로운 안목으로

조 흥 윤 |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나는 대학에서 인류학을 가르친다. 인류학은 유럽에서는 대학인류학과 박물관인류학으로 가르친다. 대학인류학이 대학에서 이론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데 비하여, 박물관인류학은 인류학박물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물을 가지고 문화를 교육한다. 요컨대 양자는 같은 인류학이라도 교육 대상과 방향이 다르다. 나는 독일 함부르크 인류학(또는 민족학)박물관에서 일하면서 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 오래 전부터 박물관대학(특설강좌·연구강좌)에서 강의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한 적이 많았다.

인류학이 다른 학문과 크게 구별되는 점으로 단연 현지조사를 들 수 있다. 현지조사는 연구자가 현지로 가서 비교적 장기간 머물면서, 그 사회에 참여하며 문화를 구체적으로 연구·이해하는 방법이다. 대학이 오랫동안 상아탑으로 존속해 이론과 개념 그리고 이상을 추구하고, 그 때문에 오늘날의 학문이 비현실적이라고 크게 비판받는 것을 고려하면 인류학의 현장성은 매우 돋보인다.

대학의 인류학과 박물관대학의 인류학을 한 번 비교해봄 직하다. 이것은 박물관대학에서 문화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관계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가장 생동하는 청년기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문교육기관이다. 거기서 학생은 삶과 사고의 방향을 배운다. 인류학적 의미로 보면 대학의 교육은 '이니시에이션(initiation:入社式, 成人式)'에 해당하고, 성인식 기간이 된다. 그래서 인류학과를 졸업하는 학생은 삶과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과 자세를 갖추고 사회로 나간다.

이에 비해 박물관대학은 사회교육기관이다. 수강생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다. 지난 봄 내가 담당했던 사상사반의 수강생은 평균 50대 초·중반으로 보였다. 이들은 꽤 긴 사회생활을

해왔고, 이제 잠시 삶의 여유를 얻어 공부하려는 분들이다. 그동안 사회와 문화가 상당히 변했기에 문화를 새롭게 읽는 일이 주요 관심인 듯하다. 그밖에 문화적 교양을 더 높이려고 수강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박물관대학에 이니시에이션의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약한 편이고, 일종의 재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헤아려 박물관의 강의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끌여가는 것이 좋으리라 여긴다.

첫째, 기본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수강생들은 나름대로 전문영역에서 다양한 경험과 고민을 겪어 왔다. 이런 분들에게는 또 다른 전문지식보다 문화의 기본내용이 필요하다.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기쁘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둘째는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이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문화에 대한 어떤 통념을 갖고 있다. 통념은 사람을 딱딱하며 피곤하게 만든다. 한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은 늘상 변한다. 그것이 학문의 성과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생활과 사회 그리고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셋째는 강의는 재미있어야 한다. 대학에서야 어차피 전문과목까지 이수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재미가 없으면 이해가 쉽지 않다. 그러나 쉽고 재미있게 강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생활 주변에서 흔히 겪고 보는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들며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 박물관대학 인만큼 수강생이 해당 유물의 복제품을 직접 만져보거나 영상물을 감상하는 방법도 써야 한다.

끝으로 현장접근을 강조한다. 새로운 안목을 가지려는 분들을 강의실에 묶어두는 것은 답답하다. 문화는 이제 살아있는 현지에서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강의실 강의 두 번에 현지 한 번 정도가 괜찮을 듯하다. 아니면 관련 인물을 강의실로 초대해 대담하거나 공연을 갖는 방법도 있다.

문화를 보는 새로운 안목을 얻기 위해 내 강의에 모인 점잖은 수강생들의 목마른 눈망울을 나는 기억한다. 

강의를 들으며

서 정 란 | 특설강좌 수강생

우리 옛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전통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해 공부하며 이해를 더한다는 것은 뜻있는 일이다.

십여 년 전쯤으로 기억한다.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에 간 적이 있었다. 아마 무슨 명품전이 열렸던 것 같다. 그때 귀중한 우리 문화재들을 보고 받은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전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인지 어쩌다 아이들을 데리고 박물관에 가도 그냥 전시장을 휘 둘러보는 정도였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대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눈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숨결로, 숨결에서 향기까지, 그분들의 내면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받은 감동을 한 편의 시로 쓰기도 했다.

高麗靑磁 陽刻竹節文瓶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高麗靑磁 陽刻竹節文瓶이

어느 도공의 숨결을 받아

몇몇 세수를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어떤 입신의 경지에서 無間地獄

불구덩이 속을 헤쳐왔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당신의 생살 터진 생채기를 보며

아픔인 듯 悅樂인 듯 흐르는

옛 빛 푸른 고요에 취해

나는 지금 숨소리를 고르고 있습니다.

대숲에 감도는 요요한 翡色 사이로
당신이 걸어난 그 길이 있을 것만 같아
천 년 고요 속을 더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우리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졌고, 그러다보니 자연 애정도 생겼다.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해가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박물관 특설강좌를 통해 공부하면 좋겠다는 딸아이의 제의를 받고 등록하게 되었다. 사전지식이 전무한 내가 수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다.

개강일을 기다려 첫 강의시간에 들어갔을 때는 염려와 놀라움이 교차했다. 그 많은 사람이 강의실에서 수업한다는 것이 염려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전통문화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놀랐다. 그러나 강의가 시작되면서 내 기우는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수강생들은 진지하게 수업에 열중했고, 각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선생님들의 열띤 강의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현장답사·전시실교육·각종 슬라이드를 곁들여서 하는 공부는 재미도 있거니와, 나 같은 사람도 이해하기 쉬워 강의시간이 지루한 줄 몰랐다.

때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 흔적없이 사라질 뻔한 발해의 우리 조상들이 웅혼한 기상을 펼쳤던 만주벌판을 달려보기도 하고, 고려의 이름모를 도공이 되어보기도 했다.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를 배우고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막연하게 알았던 고려청자의 탄생과 흥망성쇠, 더불어 분청·백자의 출현, 도자기의 역사와 고려청자의 우수성, 중국 청자와의 차이점까지 깨우쳐준 참으로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들이었다. 아쉬움이 있다면 시간 때문에 내용이 곁핥기식으로 지나간다는 것이다. 물론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덤으로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이 있다. 평소에는 여러 가지 핑계로 자주 들러보지 못하던 박물관을 강의가 있는 날이면 일찍부터 서둘러 가서 특별전시를 관람하는 것이다. 이때 강의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해를 더하는 즐거움이란, 마치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과 같은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새롭게 다가오는 우리의 전통문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예술성을 새삼 느낀다. 

특별전 안내

특별전 『靈魂의 旅程 - 조선시대 불교회화와와의 만남』

국립중앙박물관은 9월 2일부터 올해 세 번째 특별전으로 『영혼의 여정 — 조선시대 불교회화와와의 만남』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주로 우리 박물관이 소장한 조선시대 불교회화를 출품한다. 불교회화를 통해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여 저승사자를 만나 극락으로 인도되기까지 겪는, 이른바 '영혼의 여정'을 바라보고자 한다. 인간이 태어나 죽음에 이르는 짧고도 긴 삶의 여정은, 그 삶을 다한 뒤에도 여전히 輪廻의 순환을 되풀이해야 한다. 윤회의 결과적 고리는 죽음 뒤에 이루어지지만, 그 계기는 현실의 삶 속에 있다. 저승에서 영혼의 삶은 전생의 죄를 거울(業鏡臺)에 비추어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죄의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영혼은 생전에 쌓은 수행이나 공덕이 크거나, 후손의 염원이 간절하여 극락에 태어나기도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죽음 뒤에 가는 기나긴 영혼의 여정을 조선시대 불교회화와 함께 떠나고자 한다.



西山大師(東垣 李洪根 先生 기증)



靈山會上

조선시대의 불교는 抑佛崇儒 정책 아래 있었음에도 일반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워지며, 보다 다양한 신앙의 형태로 발전하는 토대를 이루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조선불화의 여러 모습을 '지옥과 극락'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통하여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녔던 불교적 내세관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불교회화는 사찰에 봉안되어 본래 예배대상의 기능을 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고유한 신앙적 성격과 함께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문화적·종교적인 산물인 불교회화를 통하여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면뿐만 아니라, 전통회화의 변용을 보여주는 새롭고도 다양한 모습을 조감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조선 초기 寫經에서부터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太古寺 十王圖>를 비롯하여 <靈鷲寺 靈山會上圖>, <甘露禱>, <阿彌陀極樂會上圖>, <四佛會圖> 등 지옥에서 극락에 이르는 장면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40여 점의 다양한 그림과 불교장엄구 등을 선보인다. 



五道轉輪大王

- » 기간 : 2003년 9월 2일(화)~10월 5일(일)
-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 » 문의 :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02-398-5133)

국립박물관 특별전 일정

국립중앙박물관

영혼의 여정 - 조선시대 불교회화와의 만남

9. 2(화) ~ 10. 5(일)

중앙박물관 소장의 조선시대 불교회화를 '지옥과 정토'라는 주제로 전시하여 불교회화의 내용과 예술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송성문 기증문화재 특별전

10. 7(화) ~ 11. 2(일)

국보인 대보적경을 포함하여 송성문 선생이 기증한 100여 점의 고전적과 서화유물을 전시하여 기증자의 뜻을 높이 기린다.

조선의 성리학

10. 21(화) ~ 11. 30(일)

조선시대의 사상적 근간인 성리학의 학문적 특징, 역사적 기능, 사회적 연관성을 유물을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전주박물관

용담지역의 역사와 문화

10. 22(수) ~ 11. 30(일)

전북 진안군 용담댐 수몰지구에서 발굴한 유물을 중심으로, 금강 상류지역의 선사~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와 문물을 소개한다.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의 도량형

7. 22(화) ~ 9. 21(일)

도·량·형을 각각 소주제로 나누어 백제 도량형 관련 문화재와 기초자료를 전시한다.

국립대구박물관

한국의 문양 - 龍

8. 12(화) ~ 9. 30(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기념 전시로, 동양문화권에서 최고의 권능과 위엄을 지닌 '용'을 주제로 한 고대 유물을 소개한다.

영남으로 가는 길 - 상주

11. 11(화) ~ 2004. 1. 31(토)

대구·경북지역 고대문화를 소개하는 특별전의 일환으로, 상주의 역사와 문화를 상주지역 출토 유물을 통해 소개한다.

국립청주박물관

불교동자상

10. 1(수) ~ 11. 16(일)

조상의 미의식이 담긴 불교동자상을 통해 불교공예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불교미술의 다양함을 소개한다.

국립김해박물관

변·진한의 여명

9. 25(목) ~ 11. 9(일)

청동기에서 삼한시대로의 전환기에 변·진한 지역(영남)의 시대상을 토기 등 고고학 유물을 중심으로 조망한다.

국립제주박물관

항해와 표류의 역사

8. 8(금) ~ 10. 12(일)

하멜 제주도 표착 30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끊임없이 있어 온 표류인과 표류문화를 재조명한다.

국립춘천박물관

구도와 깨달음의 성자, 나한

9. 9(화) ~ 10. 26(일)

영월 창원리 창녕사지 나한상과 일본 지은원소장 오백나한도 등 150여 점을 전시해, 나한신앙과 더불어 우리의 불교문화를 소개한다.

국립진주박물관

충무공 이순신

10. 14(화)~11. 30(일)

이순신 장군과 주변 인물의 활약과 사후의 선양사업 등과 관계있는 유물을 전시하고, 그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를 제공한다.

새 박물관의 공간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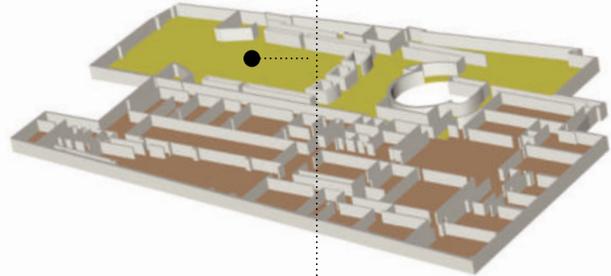
대극장

1,448㎡
851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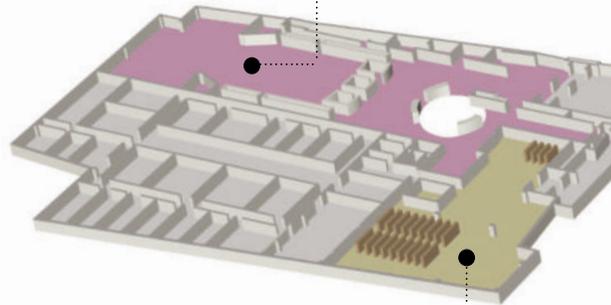
초대형 오케스트라
연주도 가능한 극장,
문화의 중추기관으로
거듭 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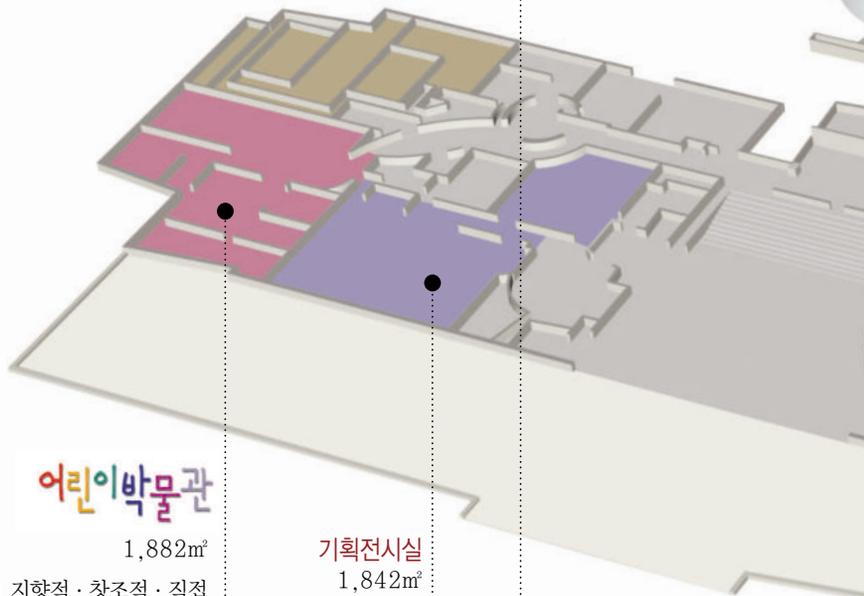
전시 3F



전시 2F



전시 1F



어린이박물관

1,882㎡

미래 지향적 · 창조적 · 직접
체험이 가능한 문화공간을 지향,
체험과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시를 이해하도록 유도
(생활 · 문화사적 전시,
교육실, 어린이마당 등)



기획전시실

1,842㎡

다양한 전시가
가능하도록
가변성 있는
전시장으로 구성

도서실

1,552㎡

국내외 문화관련
도서와 자료 등 총
10만권을 구비하고,
어린이 전용
도서실을 설치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도 가능한 공간

동양관

2,501.4㎡

주변국가의 유물을
역사적 관련성과
비교하여 전시
인도 / 동남아실
중앙아시아실
중국실 낙랑실
신안실 일본실

미술Ⅱ관

2,698.41㎡

751점

미술영역 I 과 연계하여
중층으로 전시
불교조각실
금속공예실
도자공예실

미술 I 관

2,797.41㎡

724점

관람객의 문화감각과
안목을 높일 수 있도록
명품위주 전시
목칠공예실
불교회화실
회화실
서예실

기증관

2,844.62㎡

1,128점

격조 높은 문화재를 국가에
기증한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시
동원실 수정실 등
9개 전시실

비추홀(가칭)

1,682㎡



고고관

3,284㎡

4,121점

구석기시대부터
발해에 이르는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고고유물전시
구석기실 신석기실 등
11개 전시실

역사관

4,401.59㎡

4,055점

우리 역사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왕실과 국가,
종교사상 등
9개 주제로 전시

한국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鍾仁 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鎮肅, 金榮秀 회장을 거쳐 2002년 11월 俞相玉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俞相玉
 副會長 | 李京姬 · 許東華
 理 事 | 李健茂 · 金容元 · 金宗圭 · 朴魯壽
 朴容允 · 徐載亮 · 李福衡 · 李仁洙
 全晟雨 · 鄭良謨 · 池健吉 · 千炳玉
 千信一 · 崔永道
 監 事 | 權泰宣 · 李起雄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 · 평생 · 영구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 · 금관 · 은관 · 청자 · 백자회원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 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 원 이상, 금관회원 오천만 원, 은관회원 삼천만 원, 청자회원 일천만 원, 백자회원 오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 은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회장

» 청자회원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金榮秀 변호사
 玄明官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金永珉 김&장 법률사무소
 徐載亮 아름지기 상임이사
 田永採 전 해피아이 회장
 胡鍾一 호성흥업회장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韓奉珠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 백자회원
 李京姬 수필가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지원사업

박물관 전시, 연구 · 교육 · 문화사업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 전시지원 | 전시 공동개최와 특별전 준비와 행사 등을 지원한다.
- 연구지원 | 발굴조사, 학술연구 조성비, 도서 구입 등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학술연구 활성화를 돕는다.
- 교육지원 | 전통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박물관산문을 지원한다.
- 유물기증 |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물 확대와 기증문화운동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한다. 천전리암각화모형, 청자버루, 18세기 노안도죽자, 화조8폭병풍, 독일제 유물진 열장과 국외로 반출된 조선시대 화각함을 구입 기증했다.

바로잡습니다

2호 24면 7행 5대손을 6대손으로,
 25면 3행과 6행의 郎을 朗으로 바로잡습니다.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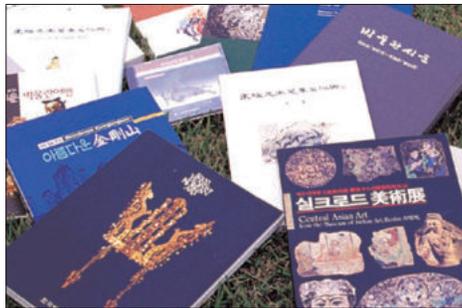
3년 이상 박물관교육을 받은 회원 중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다.

- 전시실 자원봉사
 특별전시 안내 | 특별전 기간 중 국내외 일반인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청소년 학습지도 | 중 · 고교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전시실 현장학습
 상설전시 안내 | 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 유물정리 자원봉사
 발굴조사 유물정리 | 발굴유물의 세척, 유물등록 · 실측, 토기편 맞추, 복원작업
 자료정리 | 사진 · 도면 등의 정리
 발굴현장조사 | 발굴현장에서 세척, 약실측, 정리, 분류 등을 보조
- 회지발간 자원봉사
 기획 편집 · 원고 수집 정리 · 디자인 작업 · 회원 및 관련기관에 배포
- 교육진행 자원봉사
 박물관 특설강좌 · 연구강좌 교육진행 보조
- 2004년 ICOM서울총회 자원봉사

원고를 받습니다

회지(전시실 산책 · 답사를 다녀와서 · 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8매 정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문화사업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출판과 문화상품으로 제작하여 국내외에 홍보한다.

■ **출판** |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쇄물과 CD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한국고고학미술사요해, 한국미술오천년 영문판, 동원수집문화재 1집, 동원수집문화재 2집, 동원수집문화재 3집, 동원수집문화재 4집, 고려청자명품 도록, 박물관신문 축쇄판 2집, 실�크로드미술 특별전도록, 한국전통문화, 즐거운 박물관여행, 한국전통문양 1집·CD,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도록,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 유리원판도록, 한국전통문양 2집·CD, 한국전통문양 3집, 조선시대 풍속화 특별전도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근대미술 특별전도록 등을 발간했다.

■ **문화상품** | 우리 문화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살린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관람객 편의** | 박물관 관람객에게 편의시설과 전시실 홍보자료를 지원한다.



사회교육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 **특설강좌** |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해 1977년 개설, 그동안 만 여 명을 배출했다. 매년 화·목요일 각 200명씩 400여 명을 모집해 한국사·인류학·고고학·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50여 회의 강좌와 전시실 교육, 국내외 고적답사 등 150여 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 **연구강좌** |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개설했고, 1997년 특설강좌 기수별 스터디그룹을 통합·재편해 운영한다. 한국사·동양사·고고인류·사상사·불교미술·미술사 등 6개 반으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각 반은 200여 명으로 매년 1,200여 명이 수강한다.

■ **고적답사** | 1975년부터 시작해 300여 회를 넘었다. 매월 박물관·사찰·사지·발굴현장 등 국내외의 주요유적 답사와 1988년부터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외답사를 운영한다.

■ **학술강연회·발표회** | 회원과 일반인에게 매년 3~5회 정도 국내외 전문학자를 초빙하여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된 주제, 발굴보고, 학계발표 연구내용을 강의한다.

이 책을 만들면서

가을 속으로... (은)

화첩에서 묻어나는 묵향의 은은함으로
때 이른 菊香을 맡는다. (화)

보고 또 보니 길가의 꽃들이
들국화로 느껴져요. (水)

또 울타리를 나섭니다. 관계맺음이 서툰데...
짧은 외출이 될지 긴 만남으로 이어질지...
울타리 안의 내밀한 것들은 여전히 곁을 달라
할 것 같습니다. (海)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색제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世)

香氣따라 임자떠난 두 눈은 지금 어디에... (山)

그대에게 정신이 팔리는 이유를
이제 알았네. (娥)

국화꽃이 피어 있는 동안은
아직 가을입니다. (진)

..... (경)

박물관 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제3호

발행일 | 2003년 9월 15일

발행처 | 한국박물관회

발행인 | 유상옥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김은희 손이화 안해옥 오세화 유건집 진수옥 최경자

디자인 | 전영랑

진행 | 이홍표 민혜진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110-820 서울시 중로구 세종로 1번지 국립중앙박물관 내

전화 : (02) 398-5193 · 730-7093

팩시밀리 : (02) 723-709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표지그림 이야기

靄春 申命衍(1809~1886?)의 〈石菊〉. 담채 국화그림으로 대담한 구도와 활달한 붓놀림이 빼어난 작품이다. 색이 바랜 老葉 위로 싱싱한 捲葉과 垂葉을 엮어 그려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옅은 색의 붓놀림이 막힘없이 내려오면서 바위 옆선을 굽게 그려 그림자진 면이 자연스럽고, 누은 듯 사선으로 뻗어나간 가지 끝에 꽃봉오리를 피운 구도가 남다른다. 간결 소박한 속에 의연함이 있어 조금의 잡스러움도 끼어들 수 없는 문인화의 운치가 떠 있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국립중앙박물관 내
Sejong-no 1, Ch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화 : (02) 398-5193 · 730-7093
팩시밀리 : (02) 723-709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